

제285회 임시회

시정 질문·답변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 경 배 의원

- 보문산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보강 촉구
- 학교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촉구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민 경 배 의 원

◎ 민경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3선거구 문화1·2동, 유천1·2동, 산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허파이자 보물이라 불리는 보문산 권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안전 확보 및 학폭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전은 0시 축제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관광산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와 다른 관광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대전이 지닌 다양하고 풍부한 매력을 경험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0시 축제가 열리는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을 지나 보문산까지는 도보로 관광이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보문산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체계 개선 TF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번 달 말부터 트램의 본격적 공사가 시작될 것을 밝혔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트램 계획에는 보문산과 연계되는 노선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5호선에 오월드 지선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대전의 선호 여행지 1, 2위인 오월드와 아쿠아리움이 위치한 보문산을 주요 거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문산과 연결된 지선을 우선 시공하거나 굴절버스를 활용한 순환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입니다.

시장님, 서울의 남산을 가보셨지요?

가보셨을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남산 순환버스는 서울시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난해 38만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입니다.

대전도 보문산 일대 주요 시설을 연결하고 트램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효문화진흥원과 오월드 간 도로 연계성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시민의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10시 1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현재 효문화진흥원과 오월드는 직선거리로 765m에 불과하지만 기존 버스노선으로는 30분이나 걸립니다.

두 시설을 연결하는 터널을 개설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관광객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무수동에서 구완동 도로개설 사업은 국비 90%, 시·구비 각 5%의 분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370~400m씩 시공되어 2017년 시작된 공사는 2030년에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회 시간단축과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구완동에서 이사동까지의 도로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추가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주차 관련입니다.

현재 오월드는 5월 성수기에 주차난이 심각해 산성동 인근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을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관광객의 90%가 자동차 이용자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시설 및 휴게시설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물류단지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안영IC에 만남의 광장 조성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과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제안 및 질문과 관련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5분 영상자료 종료)

대전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문산 일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내 교사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학교 내 안전 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폭 문제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전광역시 학교 안전 및 학폭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배치를 촉구하고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 교내 살인사건은 학교 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추가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고연령층의 자원봉사자가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대전에는 525명의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지원된 예산은 54억이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의 주요업무는 학교 안전 강화와 학폭 예방이지만 고연령층의 배움터지킴이가 이와 같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원봉사자라는 신분도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기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안전전문인력 상주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배움터지킴이 실효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번 교내 살인사건 이후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현재까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폭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작년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평균 약 1.5%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와 반대로 학폭 접수 현황은 작년 9월 기준 총 94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학폭은 증가하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예산 활용이 아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예방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 9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료학생에게 흥기로 찔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며 학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4년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5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간 금전을 갈취하고 괴롭힌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폭 피해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에게 마주칠 때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을 타 교실로 분리하고 학폭조사가 끝난 이후 해당 학급으로 정상 출석하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당시 교육감님께서도 학폭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대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교육감님의 그 의지가 정말 학교 현장까지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학폭의 직접적인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단순히 예산 투입이나 기존 정책의 보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학폭의 심각성과 학교 내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내의 사건·사고 및 학폭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학교안전관’ 배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제주에서는 2024년부터 학교안전경찰관을 시범운영하며 최초 1개 학교에서 현재 6개 학교까지의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만족도는 89.5%, 확대 필요성은 90.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학교안전경찰관이 상주하였던 3개교의 학폭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전년도 23건에서 52%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안전전문인력 배치가 학교 안전과 학폭 예방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한편에선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증원하여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관을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현만 가능하다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안전한 학교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하게 되려면 현재 정원인 1,127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과의 권한 책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상주는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의견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22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3분 영상자료 종료)

결국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 부족과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의 한계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교육청 자체적인 학교안전관 운영이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자체적인 가칭 학교안전관 배치에 대한 의견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민경배 의원님께서서는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는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전임 시장들께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까지 보문산 활성화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시정의 약속 사항 또 시민과의 약속 사항은 지켜야 되고 또 보문산을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 보물산으로 탈바꿈하는 데 저희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보다 제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 구성입니다.

TF 구성까지 해야 되느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보문산 프로젝트가 목달동, 구완동에 90만 평 휴양림이 금년에 착공 들어가고 또 이사동에 6만 평 한옥촌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호동에 40만여 평의 보문산 수목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뿌리공원, 치유의 숲, 아쿠아리움 그리고 보문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오월드 리빌딩 문제, 워터파크 문제, 케이블카 문제, 대전타워 문제 등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공식발표 안 한 것도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가보셨냐고 했지요, 남산을 못 가봤습니다.

남산을 못 가봐서 남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없어서 그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용역 하는 것도 있고 현재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보문산에 대한 시민들 약속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래 선거공약이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선거 때 시민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정치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대전광역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입니다만 최근에 3대 하천 준설 문제도 일부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3대 하천이 13년 동안 준설을 제대로 못 해서 지난번 서구에 일부 물난리가 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몇몇 때문에 시 전체 시민들의 안전이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수는 없다, 그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력한 정책결정과 추진력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문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5호선 문제나 굴절버스 등을 말씀하시면서 보문산의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보문산에 가장 근접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보문산오거리에서 정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사동 쪽에서 보문산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야구장 후문 쪽에 정거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보문산 이쪽, 대사동 쪽은 가까운 상황이고 저쪽 뒤, 후면 쪽의 목달동이나 무수동 쪽에서 보면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 문제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8년 도시철도 2호선 준공할 때 버스의 전면적인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문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윤곽이 드러나서 실제적인 시설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 가능할 정도로 되면 보문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대비를 해가면서 그때쯤 마무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굴절버스 말씀하셨습니다만 굴절버스는 일단 정림사거리에서 유성의 유성네거리까지 시범사업을 금년 말쯤에 7.8km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굴절버스가 실질적으로 바뀌가 달린 트램 역할을 하는, 180명에서 190명 정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올 연말쯤에 개시해서, 차량도입이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됐을 경우 연말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게 아주 교통에 효과적이면 저비용에 빠른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문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굴절버스가 차량 3개가 되기 때문에 노선에 굴곡이 심하다든가 휘어짐에서 안 될 경우에는 사실 보문산에 적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통수단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보문산 사업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교통체계 개선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구성을 안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짜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버스 도입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문산 프로젝트에서 일단 오월드를 중부권 최대의 경쟁력 있는 시설로 개편을, 도시공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3,150억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워터파크도 들어가고 현재 오월드를 일부 확장하게 됩니다.

기존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시설로 가족 단위의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300만 명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시루봉까지 저희가 케이블카를 2.2km 놓기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문산 대사동 쪽으로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옛날에 공연할 수 있는 광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가 있는데 우측으로 가면 그쪽에 이미 훼손돼 있는 평평한 데에 대전타워를 300억 가까이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아직 구체적인, 공모를 해서 곧 나가게 되지만 현재 안은 193m 정도, 지금 유성에 있는 엑스포타워가 93m인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m면 보문산 최정상에서 50m 정도 추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타워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타워 자체가, 야구가 그날 이겼나 그러면 그것을 멀리서도 대전시 지금 야구가 이기고 있구나, 축구가 이기고 있구나, 또 좋은 일이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 그 안에 성심당을 포함한 경쟁력 있는 빵집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대사동까지는 친환경버스로 3단계, 관광객들이 오월드에서 대사동까지 3단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5호선이 일단 유성 신세계 근처에서 오월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착공하는 데 28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3호선, 4호선, 5호선을 2호선 끝나고 2028년에 시작하면, 만약 과거처럼 한다면, 3호선 구축하는 데 또 30년이 걸리면 아마 저와 민경배 의원님은 절대로 볼 수 없지 않을까, 이용도 못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서 3·4·5호선 기본계획을 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

시에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교통수요가 최고로 필요한 곳부터 지금 1호선, 2호선, 버스체계에 연결을 해서 그것만 먼저 준공하는 방식으로, 3호선을 먼저 하고 4호선을 먼저하고 이게 아니고 3·4·5호선 노선 중에 가장 필요한 노선을 먼저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문산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오월드까지 터널 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효문화진흥원,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 오월드 연결하는 것은, 도로가 좀 더 완만했으면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량 수요를 확보했을 때 적정 차로를 왕복 2차선으로 봤고요.

터널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워낙 심해서, 경사가 심할 때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터널식이 아니고 개착해서 터널을 한 다음에 덮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사업비는 6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20m 미만은 사업시행을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나 중구의 노력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다, 이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남로 도로 개설 지원 확대, 이사동까지 도로 건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운남로는 사실 구완동에서 중구 보문산 뒤쪽으로 해서 이사동까지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사동에 한옥촌 6만 평을 도시공사와 짜고 있는데 도로 연결도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호동의 수목원 42만 평까지 다 연결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역시 구청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이야 열심히 했으면 해서, 시민들 뜻을 잘 헤아려서 말씀하십니다만 중구청장의 전폭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중구청에서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

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중촌동에 문화예술단지 구축하는 건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음악전용공연장.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미 2년이 지나서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엇그제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중구청장님이나 중구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일을,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2년이나 지나왔는데 중구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구민들이나 중구의 여러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 발전에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될 때 가능하지 무작정 그냥 방관,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워낙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중구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영IC 만남의 광장 조성은 빨리하겠습니다, 이건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현재 안영동 신규 물류단지 사업 검토 중에 있고요.

물류단지 내 화물이나 승용차 이런 것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건설하거든요, 작년 8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 만남의 광장보다는 2배 정도 주차장 규모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안영화물차휴게소도 2만 평방미터 정도 하게 되고요, 만남의 광장도 9,1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 등 해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개별화물운송협회 회장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하셔서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각 IC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고 화물차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기성동에 하고 있는 평촌산단 등을 포함한 대전의 서남부권, 가수원동, 기성동 일원 그리고 서대전IC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중구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보문산도 다 연결돼 있는 안영IC 문제는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민경배 의원님께서 학교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228교에 531명을 위촉하고, 대전시청에서는 새싹지킴이를 초등학교 85교에 466명을 채용하여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은 등·하교 안전지도,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교내 순찰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배움터지킴이 활동결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94.1%가 만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의의 사고 이후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대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에 2025학년도 새싹지킴이 5명 외 배움터지킴이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학교에 등·하교시간 이외에 출입문 전부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하도록 학교 출입절차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신학기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지킴이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85교에 배움터지킴이 활동인원 확대에 필

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가 맞춤형·선택형 돌봄·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한층 더 학생 귀가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귀가 지원인력으로 자원봉사자 386명을 각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안심알리미서비스, 알림벨, 화상인터폰 등 안전기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예방을 위한 대전교육청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교육청의 피해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법무부, 경찰청,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대 법률센터 등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지원단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만 갈등을 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은 학생 간의 갈등, 다툼도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조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청소년꿈키움센터를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4개의 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의 교육 3주체가 신학기 초인 2월부터 5월 중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책임규약을 수립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상담 지원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센터를 통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보호이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교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학교안전관 등 교육청 자체의 안전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확대하여 학교에 배치하면 학교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을 파견받아서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6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안전경찰관제를 3년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경찰청,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SPO 및 자치경찰, 교육청 자체 안전관리인력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보호인력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의 연령 상한제 연차적 추진을 검토하고 새싹지킴이의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대전시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등·하교 지도 중심의 학생보호인력 활동에서 교내 순찰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학생보호인력 운영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배 의원 (1차 보충질문)

시장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영IC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물류단지 조성이 주가 되고 만남의 광장은 부차적으로 소형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월드 주차장은 1,913면으로 2024년 기준 연간 75만 명이 이용하면서도 심각한 주차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월드 재창조사업으로 연간 30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고 또 케이블카의 출발점이 오월드 인근이라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안영IC 바로 인근에 있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테니스코트 32면이 추가 완공된다면 주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영IC 만남의 광장은 단순한 부가적인 시설이 아니라 교통인프라의 핵심요소로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도 보고받기로는 유성 만남의 광장보다는 두 배, 약 150면 정도의 소형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월드 리뉴얼사업에 의해서 대여섯 배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또 케이블카도 인접해서 계획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외지에서 안영IC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객 90% 이상이 자차 이용을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영IC 부분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면 이런 주차장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자체 안전관리인력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과 같이 배움터지킴이, 새싹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관 도입은 사실상 어렵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움터지킴이는 근무형태가 자원봉사직입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전지역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특정 학교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도 크고 안타까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안전관리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시스템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안전관은 청원경찰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전면 도입은 어렵겠지만 우선 대전이 선도적으로 학교안전관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민경배 의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질문 중에 안영동의 종합물류단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4차 물류기본계획에 의하면 일단 10만 2천 평입니다.
1,499억이 들고요.
타당성검토 용역을 사실상 완료했고요, 올해 6월에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 안에, 현재 기본계획은 주차장이 1,83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38대가 적다고 하면 추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민경배 의원님께서서는 학교 안전관리인력 활용방안, 또 어떻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인데 일단 안전한 공간 구성이 돼야 됩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되고 그 안에서 안전을 위한 정책이 아주 내실 있게 탄실하게 촘촘하게 잘 운영되어야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교육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습을 즐겁게 하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같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모든 면에서 그런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자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새싹지킴이분들의 연령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활동방향의 문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안전을 위해서는 교육부라든지 경찰청, 이런 모든 관련 기관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SPO라든지 전담경찰관 또 이런 안전관리인력을 위해서 각 연계된 기관, 단체 이런 모든 것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안전한 공간 속에서 그러한,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제언해 주시면 우리 대전 학교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그야말로 대전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

한 교육환경 조성과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